**마0302(2) Note**

◆회개하라(돌아오라)

◇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까?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까?

회개는 천국복음의 시작이며, 믿기전의 단계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절(마1120)에서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곧 눈물과 통곡이 부흥의 시작이다.

◇ "오직 믿음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회개나, 복음적인 순종, 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현대교인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회개 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혹이고 착각이다"

◇율법의 행위와 대비해서 사용된 오직 믿음

Ω롬0327. 그렇다면 자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느니라 (엑클레이오:내쫓다,배제하다). 무슨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에 의해서냐? 행위[법규의 행위(28절 참조)/에르곤: 에르고(일하다)에서 유래,(노력이나 직업으로서의)노역,행위,수고,일]들로 인하느냐? 아니니라, 대신에 믿음[피스티스:페이도(확신하다,확신으로 의존하다)에서 유래,설득,신용,(진리,하나님의 신실성,종교적 선생에 대한)확신,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함,직업에서의 꾸준함,진리 자체의 체계]의 법규에 의해서니라.

롬0328. 그러므로 사람은 법규의 행위 [에르곤: 에르고(일하다)에서 유래,(노력이나 직업으로서의)노역,행위,수고,일]들을 떠나서 (코리스:공간에서,분리하여,떨어져,~이 아니고,떠나서,~없이,~하지 않고,~아니면,~외에,밖에), 믿음에 의해 적법하게 여겨진다고[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의롭다고 간주하다,흠이 없다고 여기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보이다),간주하다,자유하다,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롭게 되다/ 히브리어 짜다크(도덕적이나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깨끗케 하다,정결하다,의롭다,의롭게 하다,의를 행하다,의로운 상태가 되다)에 상응], 우리가 결론을 내리느니라(로기조마이: 목록을 작성하다,계산하다,포함하다,짐작하다,놓다,헤아리다,추리하다,상징하다)

Ω롬0413. 이는 그 약속 곧, 그가 이 세상의 세습자(클레로노모스:제비뽑기에 이긴 자,기업 무를 자,소유자,후사,상속자)로 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를 통해서가 아니었고, 믿음의 '법적 깨끗함'을 통해서였음이라.

갈0216. "사람이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의 행위(에르곤: 노역,행위, 수고,일)에 의해서[에크:(동작이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냄)(기원,원인,동기,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됨),원천,~로부터,후에,중에,~에 의하여,~에게서,~로 말미암아,~로 만든,~에게 속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디아: 행위의 통로를 가르킴,~을 통하여,후에,항상,가운데,피하다,때문에,~에 의해서,~으로부터,안에,~을 위해,그것에 의해,그러므로,비록,~에게,무슨 이유로,~와 함께)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알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으니, 이는 우리가 법규의 행위에 의해서(에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에크) 적법하다고 여겨지려 함입니다. 이는 법규의 행위에 의해서(에크)는 어떤 육신도 적법하다고 여겨지지 못함이니이다."

빌0309. 그리고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에서 비롯되는 내 자신의 '법적 깨끗함'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인 그것을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법적 깨끗함'을 가지고서, 그분 안에서 발견될 것이며②,

1. 회개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약은 씁니다, 그래도 우리를 고치기 때문에 먹습니다. 회개도 씁니다, 회개하면, 하던 짓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씁니다.

회개는 약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팔, 다리를 짤라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마0530.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넘어뜨리면(스칸달리조:걸려 넘어지다,함정에 들다,죄에 빠지다,배반당하다,불쾌하게 되다,죄를 범하게 되다) 그것을 잘라, 네게로부터 그것을 던져버리라. 이는 네 온 몸이 지옥에로 던져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체들 중의 하나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네게 유익함이라,

3. 회개는 죄를 미워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4.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낱낱의 죄에서 말입니다.

다른 병은 다 고쳐도, 한가지 병이 남아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구멍이 난 배를 다 메워도, 한 구멍을 막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사슴의 세 발이 자유해도, 한 발이 덫에 걸려 있으면 잡힙니다. (찰스 스펄전)

◇토마스 왓슨

참다운 회개는 보류하는 것도 동거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

◇썬다 싱

큰 죄만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죄의 기원이 되는 숨은 악념이 더욱 파괴력을 지닌다.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 나쁜 단 한가지의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하며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 Joseph Alleine

죄중에 하나라도 보류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용납치 않으실 것이다.

그대의 죄들을 송두리채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대신 죽어야 한다.

단 하나의 아주 작고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대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그 죄를 살려준 대가로

대신 죽어야 한다.

◇ 챨스 스펄젼

우리가 방자하게 또 고의적으로 한 가지 악이라도 품고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니다.

◇ Joseph Alleine

그대가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빵이 필수적인가? 호흡이 필수적인가?

그렇다면 회개는 그와 비교도 안될만큼 필수적이다.

◇로이드 존즈;

기독교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는 종교이다.

5.자복할 것은 있지만 회개할 것은 없어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는 필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도우미: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러한 준비단계 없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그들 자신들을 먼저 정화시키는 준비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출1910.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라, 백성에게 가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화(淨化) 시키라. 그들로 자기들 옷을 빨게 하라,

출1911. 그리고 셋째날에 대비하게 하라, 이는 셋째날에 여호와가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나이 산 위에 내려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은 죄된 세상에서, 속된 세상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작업의 시작도 먼저 애굽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0703.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네 고향에서와 네 친족들에게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기 전에 먼저 준비작업과 죄에서 떠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의 필수과목을 거쳐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약효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작업(회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치료받기 전에 아침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속을 비우고 오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식사를 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회개는 믿음 전에, 접붙여지기 전에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막0115.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가득 채워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왕국(바실레이아: 왕권,통치,왕국)이 가까이에 있느니라. 너희는 회개(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마귀가 신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처음은, 시초는 돌아서는 것, 떠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마0417. 그 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선포)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르시되, 회개하라(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이는 천국왕국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 침례 요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0302. 그리고 말하되, 너희는 회개하라(마음, 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에오:생각하다,재고하다,가책을 느끼다,뉘우치다,회개하다), 이는 천국의 왕국(바실레이아)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 우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회개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현대 교인들 ; 우리는 크리스천이야, 교회에 다니고 있어, 회개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게 무슨 말이야?

바울 또한 회개 다음에 믿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행2018.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오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온갖 자기비하의 정신으로써, 많은 눈물들로써, 그리고 유대인들의 숨어 기다림에 의해 내게 닥친 시험들로써 여호와를 섬기면서, 모든 제때들에 어떤 방식을 좇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지와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그리스인들 양쪽에게, 하나님을 향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한 아무것도 간직해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또 공개적으로,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너희를 가르쳤던 사정을② 너희가 아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의 토대들을 이야기 하면서, 제일먼저 회개의 기초를 거론합니다.

히060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교훈)의 원리들을 남겨두고, 우리가 완전함에로 계속 나아가고, 죽은(생명이 없는) 행실들로부터의 회개의 기초(토대)를, 하나님을 향한(에피: 분배의 관계로서 시간 장소 순서 등에 첨가함을 의미, ~위에/속격을 지배할 때:위에,가까이에,가에,앞에,~에 대한,대해서/여격을 지배할 때: 안에,~위에,대항하여,~곁에,~에,~에게서/대격을 지배할 때:~위로,~건너로,위에,~을 향하여,~을 위하여) 믿음의 기초를,

히0602. 침례(잠겨 하나로 됨)들에 관한 가르침(교훈)의 기초(토대)를, 안수의 기초를,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초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 살아있는 동안만 죽음에 대비할 수 있고, 가능한 회개

(벧후0315, 전0904)

벧후0315. 그리고 우리의 사랑 받는 형제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너희에게 또한 썼던 것과 똑같이, 또한 서신서들 안에서 이들의 것들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와 같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마크로뒤메오:오래 참음,꿋꿋함,인내,참을성)이 구원임을 여기라(헤게오마이: 인도하다,명령하다,여기다,생각하다,설명하다,세다,판단하다,중요인물이 되다).

전0904. 이는 모든 살아있는(생명 있는) 자들에게 합류되어 있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음이라, 이는 살아있는(생명 있는) 개가 죽은(생명 없는) 사자보다 더 나음이라.

롬0204.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크레스토테스:유용함,(도덕적으로 성격,품행에서)탁월함,인자(仁慈),자비,선함]이 너를 회개[메타노이아:히브리어 슈브(돌아오다,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에 상응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다르게 또는 후에 생각하다,회개하다)에서 유래,(죄에 대해 개심을 포함한)가책,(타인의 결심을)반전시킴,회개,개심]에로 이끄심을 알지 못하고,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제하심(아노케:자제,절제,인내,관용)과 오래 참으심(마크로뒤메오:오래 참음,꿋꿋함,인내,참을성)의 풍성함들을 멸시하느냐?

◆회개하고 살라 : 에스겔 18장

겔1802. 이스라엘 땅에 관해, 너희가 이 속담을 사용함은 너희가 무엇을 뜻하려 하느냐? 말하되, 조상들이 신 포도들을 먹어서, 그 자녀들의 이(치아)가 시큼하도다(벼랑 위에 있도다)

겔1803.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사용할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느니라.

겔1804. 보라, 모든 혼(魂)들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의 혼(魂)과 같이, 그렇게 아들의 혼(魂) 역시 내 것이니라. 죄 짓는 혼(魂), 그것은 죽느니라.

겔1805. 만일 사람이 적법하고, 또 적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겔1806. 그리고 산들 위에서 먹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그의 눈들을 들지도 않았으며, 그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았으며, 월경 중의 부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면,

겔1807. 그리고 누구도 압제하지 않았고, 대신에 채무자에게 그의 저당물을 복귀시켰으며, 폭력에 의해 아무도 약탈하지 않았으며, 그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었으며, 헐벗은 자를 옷으로 입혔으면,

겔1808. 고리(高利)를 받고 주지도 않았고, 어떤 증식을 취하지도 않았고, 무도한 불법(비틀림)으로부터 그의 손을 거두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 정의를 실행했으며,

겔1809. 진실되게 처신하기 위해, 내 법령들 안에서 걸으며, 내 규범들을 지킨 그 자, 그는 적법하며, 그는 분명코 사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느니라.

겔1810. 만일 그가 강도 곧, 피를 흘리는 자며, 이들의 것들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것을 행하는 아들을 낳으면,

겔1811. 그리고 저가 그것들의 책무들의 어느 것을 행하지 않으면, 대신에 심지어 산들 위에서 먹었으며, 저의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면,

겔1812. 가난하고 곤궁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폭력에 의해 약탈했으며,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우상들에게 저의 눈들을 들었으며, 혐오스러운 것을 저질렀으면,

겔1813. 고리(高利)로 내주었으며, 증식을 취했으면, 그렇다면 저가 사느냐? 저가 살지 못하느니라. 저가 이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행했느니라, 저가 분명코 죽느니라, 저의 피는 자기 위에 있느니라.

겔1814. 한데, 보라, 만일 저가, 저가 행한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들을 보고, 숙고하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는 아들을 낳으면,

겔1815. 그가 산들에서 먹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그의 눈들을 들지도 않았으며, 그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겔1816. 또한 누구를 압제하지 않았으며, 저당물을 보류하지도 않았고, 폭력으로 약탈하지도 않았으며, 대신에 굶주린 자에게 그의 빵을 주었으며, 헐벗은 자를 옷으로 입혔으면,

겔1817. 가난한 자로부터 그의 손을 치우지 않았으며, 고리(高利)나 증식도 받지 않았으며, 나의 규범들을 실천했으며, 내 법령들 안에서 걸었으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무도한 불법(비틀림)때문에 죽지 않느니라. 그는 분명코 사느니라.

겔1818.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가 잔혹하게 압제하고, 폭력에 의해 저의 형제들을 약탈하고, 저의 백성 사이에서 좋지 않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보라, 바로 저는 저의 무도한 불법(비틀림) 가운데서 죽느니라.

겔1819.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느니라, "왜냐? 아들이 아버지의 무도한 불법(비틀림)을 떠맡지 않느냐?" 아들이 적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고, 내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또 그것들을 행했으면, 그는 분명코 사느니라.

겔1820. 죄짓는 혼(魂), 그것은 죽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무도한 불법(비틀림)을 떠맡지도 않으며, 아버지는 아들의 무도한 불법을 떠맡지도 않느니라, 정당한 자의 정당함은 그 자 위에 있으며, 사악한 자의 사악함은 그 자 위에 있느니라.

겔1821.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그가 저질러 왔던 그의 모든 죄들로부터 돌아서고, 내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적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것이면, 그는 분명코 사느니라, 그는 죽지 않느니라.

겔1822. 그가 저질러 왔던 그의 모든 범법들, 그것들은 그에게 언급되지 않느니라. 그가 행한 그의 정당함 가운데서 그가 사느니라.

겔1823.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길들로부터 그가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자가 죽어야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겔1824. 그러나 정당한 자가 그의 정당함으로부터 돌아서서, 무도한 불법(비틀림)을 저지르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라 행하면, 그가 사느냐? 그가 행해 왔던 그의 모든 정당함은 언급되지 않느니라. 그가 위반한 그의 범법 가운데서, 또 그가 죄를 지었던 그의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그가 죽느니라.

겔1825. 그럼에도 너희가 말하느니라, "여호와의 길이 고르지(평탄치, 공평치) 않느니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고르지 않느냐? 너희 길들이 고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

겔1826. 정당한 자가 그의 정당함으로부터 돌아서서, 무도한 불법(비틀림)을 저지르고, 그것들 안에서 죽으면, 그가 행한 그의 무도한 불법 때문에, 그는 죽느니라.

겔1827. 다시, 사악한 자가 저지른 그의 사악함으로부터 그가 돌아서서, 적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의 혼(魂)을 살아있게 간직하느니라.

겔1828. 그가 숙고하고, 그가 저질렀던 그의 모든 범법들로부터 돌아서기 때문에, 그는 분명코 살며, 그는 죽지 않느니라.

겔1829.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말하느니라, "여호와의 길이 고르지(평탄치, 공평치) 않느니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 길이 고르지 않느냐? 너희 길들이 고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

겔1830.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기의 길들을 따라서 낱낱의 자를 심판할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라, 그러면 무도한 불법(비틀림)이 너희의 파멸(붕괴)이 되지 않느니라

겔1831. 너희가 그것으로 범해왔던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너희로부터 던져버리라, 그리고 너희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靈)으로 만들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것임이냐?

겔1832. 이는 내가 죽는 자의 사망 안에서 아무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 너희를 살리라.

◆**용어 : 구약의 회개(슈브)와 신약의 회개(메타노이아)**

자료 출처 : 조용현(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구약의 회개－슈브(bWv)를 중심으로－**

구약성경은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사실상 회개를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의 마아스(sa'm;)와 니함(µj'nI)이 있지만

이 단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후회에 사용되며(욥 42:6; 민 23:19; 삼상 15:11;

렘 4:28), 사람의 회개를 나타내는 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참회 행동에 관한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bWv)에 포함되고 슈브로 요약된다.

따라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회개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살펴보기보다는 회개를 의

미하는 슈브가 나타내는 회개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슈브의 어원 및 기본적 의미

슈브의 어원은 아카드어 샤부( sˇa-bu)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뜻은 ‘흔들리다(sway)’, ‘어지럽다(become dizzy)’이다. 여기서 비롯된 히브리어 슈브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움직이는 것, 즉 ‘돌아오다’, ‘되돌아오다’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게 된다.

슈브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수르(rWs)와 파나(hnP; ;)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물리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할 뿐 회개와는 관련이 없으며, 앞서 언급한 마아스와 니함도 사람의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니함은 주로 니팔 형태로 사용되면서 회개보다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한다.

2. 슈브의 용례

슈브는 구약성경에서 열두 번째로 가장 자주 사용된 동사로서 총 1,060회 언급된다. 주로 칼(Qal, 기본형) 형태(683회)와 히필(Hiphil, 사역형) 형태(360회)로 사용되며 예레미야에 가장 자주 나오며(112회), 다음으로 시편(72회), 창세기(68회), 에스겔(63회), 역대상(62회), 열왕기상(62회), 열왕기하(55회), 이사야(51회) 순이다.

칼 형태 중에서 회개의 의미로는 129회 사용되었다.

한편, 회개와 관련된 히필 형태는 11회만 사용되어 구약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거의 슈브의 칼 형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3. 구약에서 슈브의 의미

슈브가 의미하는 회개는 특별히 예언서와 역사서에서 강조된다.

예언서에서 회개의 목적은 원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돌아감은 단순히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원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모스에서 슈브는 주로 사람들의 회개를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된다(암 4:6-11).

호세아에서는 결혼에 비유되어 하나님을 불성실한 백성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혼 당한 남편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를 원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아 다

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호 11:1-11. 참고 5:4).

예레미야는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 비유를 발전시킨다(렘 3:1. 참고 8:4-7; 14:2; 15:15).

이사야 또한 회개를 언급하고 있으며(사 30:15), 특이한 점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숩(bWvy; ra;v].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이라고 했다.

포로기 전의 예언자들은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가 가능하다고 여겼고 거기에 큰 소망을 두었다.

한편, 역사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열왕기하)와 역대기도 회개를 강조한다.

그런데 예언서와의 차이점은 회개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다.

포로기 전의 예언서에서도 회개하면 재앙, 즉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재앙이 이미 도래하여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역대기에서는 예언서에서 긍정적인 권고로 언급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부정적인 권고, 즉 ‘악으로부터 돌이킬 것’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도 나타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추상적인 회개보다 더 구체적이고 시급한 회개를 의미한다.

4. 슈브의 신학적 의미

할러데이는 슈브의 164회 용례들이 계약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회개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슈브는 회개라는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중심적인 단어이다.

슈브가 의미하는 회개의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방향의 전환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과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회개의 과정은 예레미야 3장 22-4장 2절에서 명확히 묘사되는데 그것은 회개의 참된 예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3:22),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3:23), “제(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로 자백하는 것(3:25),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3:25), 새로운 행동을 하기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4:1-2)이다.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되어 회개한 사람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진노를 돌이킬 것임을 약속하신다(호 14:4).

아모스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의미인 ‘돌이키지 아니하리니’(WNb,yvia} alO o)라는 표

현을 사용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확실히 구약성경에는 명확한 회개의 개념과 체계화된 회개의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은 슈브를 통해 기본적으로‘돌아오다’를 의미하며 돌아오기 전에 했던 악행, 폭력, 우상숭배 및 죄 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다루는 구절들에 나타나 회개와 연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언자들은 슈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돌이켜, 인간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런 개념이 구약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Botterweck, G. J. and H. Ringgren (eds.) tr. by Willis, J. T.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15 vol. Michigan: Eerdmans, 2006.

Jenni, E. and C. Westermann (eds.) tr. by Biddle, M.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1997.

Köehler, L. and W. Baumgartner (eds.) tr. & ed. under the supervision of

Richardson, M. E. J.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VanGemeren, W.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4 vol. Grand Rapids, Mich.: Zondervan Pub. House, 1996.

Waltke, B. K. and G. L. Archer and R. L. Harri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2 vol. Chicago: Moody Press, 1980.

:: 조용현 연세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신약의 회개－메타노이아(metanv oia)를 중심으로－**

자료출처 : 장성민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약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용어는 크게 ejpistrevfw와 metanoevw로 대별될 수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이 두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두 용어가 거의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칠십인역이 회개를 뜻하는 ‘슈브’(bWv)를 주로 ejpistrevfw로 번역한 것과는 달리

신약성경은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지 않고 슈브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metanoevw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metavnoia(metanoevw)의 의미를 중심으로 신약에 나타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메타노이아의 어원 및 기본적 의미

기본적으로 보다 동적인‘돌아섬’을 뜻하는ejpistrevfw(to turn around)와는 달리 metavnoia(metanoevw)는 이 말이 전치사 metav(after, with,around 등)와 명사 nou'"(mind, intellect, insight 등)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확인되듯이,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 혹은 ‘다른 관점을 취하다’를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느낌이나 감정, 혹은 의지나 생각에 영향을 끼치며 단순히 이지적인 사유의 결과에 따른 생각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이네 헬라어에서 이 말은 주로 단순히 ‘생각의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metanoevw는 칠십인역에서 회개를 뜻하는‘슈브’(bWv)가 아니라 주로‘무엇인가를 후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니함’(µj'nI)을 번역하기 위해서 14회 사용되었다.

2. 메타노이아(메타노에오)의 용례

신약성경에서 metavnoia(회개)와 metanoevw(회개하다)는 주로 공관복음서에 나타난다. metavnoia는 마가복음에 1회, 마태복음에 2회, 누가복음에 5회 나타나며,

같은 누가 저작인 사도행전에 6회 나타난다.

동사형태인 metanoevw는 마가복음에 2회, 마태복음에 5회, 그리고 누가복음에 9

회 나타나며 사도행전에서는 5회 나타난다.

오히려 서신서에는 이 용어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데, 바울은 metavnoia를 3회, metanoevw를 1회 사용하고 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오직 명사형인 metavnoia의 형태만 나타나는데, 목회서신에서는 이 단어가 오직 한 번 등장하며, 히브리서에서는 3회 베드로후서에서 2회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요한 문서에서 metavnoia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사 형태인 metanoevw가 계시록에서 비교적 자주(11회) 등장한다.

3. 신약에서 메타노이아의 의미

공관복음에서 총 8회 나타나는 metavnoia 중에서 5회가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요한의 설교에서 이 단어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의 설교에서 ‘회개’는 무엇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막 1:4 이하).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설교의 말미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 병행)고 권고한다.

특이한 점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회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1장 32절 그리고 13장3절과 5절은 예수가 분명 회개를 선포했음을 보여 준다.

공관복음의 회개 선포가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예수의 말씀과 사역들에 대해 헌신을 요구한다(눅 10:13;

11:32 병행).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막 1:15). 즉 예수가 선포한 회개는 소극적인‘돌아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미 도래하고 있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 누가에게 있어서 회개는 죄의 용서(행2:38; 3:19; 5:31; 8:22 등) 혹은 세례 및 구원(혹은 성령, 행 2:38; 11:18 등)을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누가에 따르면 회개는 용서의 전제이자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바울 서신에서는 유대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인간을 metanoia v (metanoevw)에 이르게 하지만(롬 2:4),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ajmetanovhto" kardiav , 롬 2:5)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와 12장 21절에서는 metanoia v (metanoevw)가 ‘마음의 변화’라는 다소 약화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회개를 통해 요구되는 삶은 주로 ‘믿음’ 이라는개념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곧 바울이 회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외의 다른 서신들에서 metavnoia는 올바른 가르침과 행실로 돌아섬(딤후 2:25),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섬(히 6:1), 신성모독으로부터 돌아섬(벧후3:3 이하 단락)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특히 베드로후서에서는 회개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삶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

4. 메타노이아의 신학적 의미

신약성경이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지 않고 슈브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metanoevw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성경 기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슈브가 함의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생각이나 의지, 즉 nou'"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를 변화시킨 것이 단순히 슈브의 의미를 개념화시킨 것은 아니다.

사실 metavnoia(metanoevw)를 주로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로 이해하는 경향은 신약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용례들에 기초하여 생각할 때 이 용어는 어원적이거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전인이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이나 순종으

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이 말을 단순히‘회개’(repent)라는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를 심화시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의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의 회개는 순수하게 외적인 돌아섬이나 단순한 내적인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포괄하는 ‘진정한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Balz, Horst and Schneider, Gerhard (ed.)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Michigan: Eerdmanns Publishing Company. 1991. s. v.

“metavnoia”by H. Merklein.

Baur, W. F. Arndt, F. W. Gingrich, and F. W. Dank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s.

v. “metanoevw”.

Brown, Coli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Michigan: Zondervan Pub. House, 1986. s. v. “metavnoia”by J.

Goetzmann.

Kittel, G and Friedrich, G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V, Michigan: Eerdmanns Publishing Company. 1967. s. v. “noevw

ktl)”by J. Behm.

Moulton, J. H and Milligan, G. Vocabulary of the Greek Testament. London:

Hendrickson Publisher 1930. s. v. “metanoevw”.